

건강 칼럼

면역력 떨어지는 환절기 '중이염' 주의

중이염은 주로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 발병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원인과 증상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아이들만 걱정할 게 아니다. 성인들은 귀에 증상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중이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발열, 어지럼증, 콧물, 코막힘 등 중이염 초기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해 주의가 필요하다.

▲중이염, 중이강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염증성 변화

중이염은 '가운데 귀'라고도 불리는 중이(귀의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 사이의 공간)내에 일어나는 모든 염증성 질환을 말한다.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중이강 공간은 이관이라 불리는 작은 관을 통해 코의 안쪽과 연결되어 있다. 급성 중이염은 목이나 코의 염증이 이런 이관을 통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중이로 전파되어 생기는 것이다. 주로 이관이 덜 발달한 자주 감기 걸리는 유소에서 호발한다.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을 앓고 난 후, 혹은 자체의 이관 장애로 인하여 고막 안에 물만



박민영

대전울지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차 있는 경우이며, 만성 중이염은 세균 및 바이러스로 인해 반복적인 감염과 염증이 지속되어 3개월 이상 만성화된 상태를 말한다.

▲적절한 치료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사망까지

급성 중이염의 가장 중요한 증상은 귀 통증이다. 발열 및 콧물, 코막힘 등의 감기 증상이 동반된다. 고막 및 중이강의 전방적인 붓기와 중이 내의 삼출액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고 귀가 딱딱한 증상이 동반되며, 심하면 고막이 찢어져 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급성 중이염은 대개 특별한 후유증 없이 잘 치유되는 편이긴 하나, 치료가 잘 안되어 염증 상태가 만성화 되면 난청이 발생하게 되어 발을 배우는 유소아의 경우 언어 발달 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에서 단계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악화된 이관 기능으로 발생하며, 급

격한 기압변화(비행기 이착륙, 스쿠버다이빙)와 같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되기도 한다. 귀막막, 귀울림, 이명, 난청 등의 증상이 주로 발생하며 보존적 치료를 통해 중이강 내 물이 고인 상태는 일부 저절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만성화된 경우 고막완가관 삽입술을 시행한다.

만성 중이염은 이러한 염증 상태가 오랜 시간 지나 통증이나 발열 같은 증상은 없으나 반복적으로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더 나아가 청력 저하와 이명 등으로 진행된다.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이나 안면마비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특히 진주종성 만성 중이염의 경우 방치될 경우 염증이 뇌막이나 뇌로 진행하여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만성 중이염은 대개 청력 상태, 염증에 귀 주변 골구조의 파괴 범위 정도를 확인하여 수술적 치료

를 결정하게 된다. 보통 수술을 하기 전에 적어도 1개월 내지 3개월간 꾸준한 항생제와 점액 등 내과적인 치료를 시도하고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게 된다.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대개 잘 호전되지만, 방치할 경우 염증이 소리를 전달하는 구조를 파괴하여 난청이나 이명,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주변의 신경이나 뇌로 퍼지게 되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중이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기본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손 씻기,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지 않기와 같은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권유된다.

또한 유소아의 중이염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첫 병수유, 간접흡연, 알레르기, 이관기능이나 편도 아데노이드 상태 등이 중이염 발생과 연관 있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관련된 요인들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특별한 권고되는 예방법이나 수칙이 없기 때문에 귀 딱딱함, 잘 안 들림, 귀에서 진물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조기에 치료를 받아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설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 문제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길이 한반도 냉전 구조의 마지막 고리를 푸는 길이다. 한반도 냉전 구조는 미국-한국 대 중국-북한이 적대적으로 대결한 70년을 의미한다.

지금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등은 적대관계가 상당히 완화됐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은 여전히 서로를 증오하고 있다.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현 냉전 구조의 핵심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여러 해법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제 북핵 문제에 해결의 지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 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인정하고, 단계적 점진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가지 핵심은 여전히 중요하다. 당시 단념은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등에서 이뤄졌다.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실무협상과 고위급 회담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 냉전 해체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만이 남북한 모두가 사는 길이다.

냉전 구조는 우리의 삶과 운명까지 속박하고 있다. 남북한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미래에 양운을 드리우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미 한 차례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았다.

이는 주변국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일이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결정은 결국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사람들이 이룬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다.

남과 북은 1972년 분단 이후 최초로 7.4 공동성명을 선언했다. 3대 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백두산에서 다시 확인시켰다. 미국의 눈치만을 지나치게 보아서는 안 된다.

핵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야 한다. 단선적 미국 정책과 대북 정책 등을 진단하고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순창군의 시티투어버스 관광

운행을 중단했던 시티투어 버스가 다시 달린다. 순창군은 이달 3월 3일부터 시티투어인 '풍경버스' 운영을 재개했다. 풍경버스는 순창 고추장 마을, 강천산, 계계산 등 순창을 대표하는 주요 관광지를 순회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효소스 토굴, 청소년센터(홀어머니산성 입구) 등을 경유지로 추가했다. 풍경버스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 1일 6회씩 운행하며 탑승료는 현장 결제로 하면 된다.

이용료는 성인 2000원,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이면 1000원이고 순창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순창군은 순창의 야간 명소를 구경하는 달빛 투어와 봄 빛 투어, 여름 푸드 투어 등 계절별 코스 운영을 계획 중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풍경버스가 2층 오픈 버스타는 강점을 활용해 순창을 찾는 관광객이 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투어패스'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으로 확대돼 공식 발매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 도입된 사업이다.

전북투어패스는 카드 한 장을 손에 들고 도내 시군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비롯해 청정 자연유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각종 무료·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역 내 주요 60여개 관광지와 시·군 군내버스 및 공영 주차장(무료 2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1,000여개의 맛집·숙박·공역(체험) 등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북투어패스 발매로 전북 14개 시군의 전통문화, 생태자원, 농산어촌 등 전북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통합 연계했다는 평이다.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연장되는 등 관광산업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가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판매가 중요하다. 대규모 국제행사 연계하는 일도 필요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화물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제 말아야

최근 대형버스와 화물차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과속에 적발된 화물차 및 덤프 트럭이 전국적으로 3만 대가 넘는다.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총 8만 5천여 건으로 3천 2백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형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17배가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속도제한 장치 개조는 불법 개조업자들이 관광버스 회사나 대형 화물차의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 대에 15만~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시속 90~110km로 설정된 차량 최고속도를 100~140km로 높여주는 식으로 운전자들을 상대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10분도 걸리지 않고 원래대로 복구도 어려움이 없이 가능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도 적발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 제한장치 해제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더불어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 미약했던 처벌수준에서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 차의 운전금지'를 적용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형사입건 및 통신문사 등이 적용된다.

이러한 속도제한 장치 해제행위는 순간의 단속을 피할 수는 있어도 불시에 찾아오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근수무주경찰서 민원실장경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세손가락 경례'



24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체포된 시위대를 태운 버스가 역풍 높은 인세인 교도소를 나와 밀려지지 않은 장소로 향하는 가운데 버스 안 시위대가 차량 밖으로 세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Large graphic illustration featuring a sailboat on stylized waves, a sun, and a moon, serving as a background for the editorial notice.